

디지털시대, 시민행복 위한 담론의 장

전주시·로컬퓨처스, 제8회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개최... 디지털사회로 전환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화 위한 토론마련
전 과정 유튜브 생중계로 일거리·먹거리·지역금융 국내외 전문가 참여...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등 3개 세션 토론 진행

전주시와 로컬퓨처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8회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를 공동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지역화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호주와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 세계 5개국 20여 명의 일거리·먹거리·지역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담론을 펼쳤다.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8회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행사는 '지속가능한 지역화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호주와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 세계 5개국 20여 명의 일거리·먹거리·지역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담론을 펼쳤다.

먼저 '생태학적 범위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퓨처스 대표는 "사회와 환경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의 확장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필요성과 환경의 한계에 기반하여 기술과 경제 확장에 합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준에 정해진 비즈니스 기반 디지털 혁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조 강연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디지털 전환과 푸

드플랜 △지역금융에서 본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3개 세션의 토론이 펼쳐졌다.

1세션에서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이자 공동체 기반의 민주적 통제 가능한 '플랫폼 협동조합'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2세션에서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푸드플랜에 관한 흐름과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푸드플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지역금융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운영 중인 '원데이 사례 △전주시의 디지털 전환 △지역화폐, 사회적금융 등 지역금융 운용방식이 디지털에 의해

받는 영향 등 지역금융이 지역순환경제와 시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회의는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향후 회의 녹화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오창환 제8회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지역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성공적인 지역화를 이루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기술 통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자"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역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라감영, 역사문화 체험놀이터로

내달 20일까지 '시시때때 전라감영 체험놀이터' 운영
역사추리 방 탈출 게임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구성

전라감영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전라감영에서 '시시때때 전라감영 체험놀이터'를 운영 중이다.

전라감영의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시시때때 전라감영 체험놀이터'는 △전라감영이 크라임씬 EP.1 '강태운 살인사건' 역사추리 방탈출 게임 △전통놀이 △종이접기 왕 등 전라감영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먼저 전라감영이 크라임씬 EP.1 '강태운 살인사건' 역사추리 방탈출 게임은 실제로 전라감영에 기록된 '강태운 살인사건'을 실제 사건의 현장을 극으로 재현해 참여자들이 수사관이 돼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조선시대의 수사 방법과 사회적 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일~5일, 11월 14일, 17일~20일 24~25일 오후 8시부터 총 10회에 걸쳐 유료로 진행되며, 티켓은 에스24 티켓 (tikets24.com/Perf/43482)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또한 '전통놀이'는 옛 선조들이 즐기던 △고구 △비석치기 쌍륙 △화기투 △승경도를 총 5명의 전통놀이술사가 전라감영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내 듣고 이들과 승부를 겨뤄 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일~2일 16일 23일 29일~30일, 11월 5일 12일~13일 20일 등 총 10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다.

끝으로 '종이접기 왕'은 두 배우가 만담 형식으로 7인의 왕과 관련된 인물의 이야기를 참여자들에게 들려주고, 종이접기를 통해 등장인물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배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라감영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청년 예술가, 기획자가 한곳에 모여 코로나 시대의 어울릴 방법을 끊임 없이 모색했다"면서 "이곳 전라감영을 배경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특성을 살린 흥미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면,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친해진 전라감영 인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독서대전 성료... 풍성한 책 잔치로 '인기'

무대에서 만나는 작가 강연·북마켓·독서체험부스·추억의 시간여행 만화방 등... 시민들 '큰 호응'

전 '2022 전주독서대전'이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110개 프로그램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어느 해보다 풍성한 책 잔치로 마무리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전주한문화관 일원에서 '책여행' 발걸음의 기쁨을 주제로 열린 '2022 전주독서대전'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만끽한 관람객들의 참여 속에 모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독서대전에는 작가 책으로 여행하든의 정보라 작가와 장동선 작가 김하나·황선우 작가 김이름 작가가 전주 올해의 책 작가들 혼불문학상 수상 작가, 전주를 읽어드립니다. 전주를 사랑한 작가 강연 등 직접 작가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독자들의 긴 줄이 이어지

고 했다.
또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북마켓과 독서체험부스의 경우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추억의 시간여행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인 △만화책후들의 방 △길거리 책 운동회 △X퀴즈 △군을 찾아라 등은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여기에 개막공연으로 열린 청년소리꾼 이야기 '달롱개' 공연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으며,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접목한 조선팝공연(폐막공연)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판타스틱 풍선공연 △환상의 버블공연 △캐릭터 솜사탕 공연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가족 독서골든벨 △시민 책방 등도 진행돼 가을철 잊지 못할 추억의 책 여행을 선물했다.

이외에도 △완판본과 떠나는 전주 서포 여행 △고(古)잡지 영인본·출간 잡지 전시 등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다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최라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으로 올해의 독서대전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편성하여 전주시민의 삶에 즐거움을 안겨주고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전주다운 책 축제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완산소방서,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발표

전주완산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임 대상물은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을 하려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곳으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장고 및 냉방장치 또는 냉동·냉장창고이다.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보유·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료 선임기간은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한 때에는 300만원의 벌금, 미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장애인 접근권 확대 정책토론회

김학송·신유정·최서연 시의원 공동 주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제도적 방안 마련 모색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장애인 접근권 확대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전주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김학송·신유정·최서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접근권 확대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

적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서연 의원은 "전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장애인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돼 있다"면서도 "이제는 물리적 장애물 제거에 그친 것이 아닌, 진일보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믿음, 신뢰받는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의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의
WANJU COUNCIL